

매일신문에 나타난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I)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은 영 자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최 윤 혜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형 승 희

目 次	
I. 서 론	3. 1970~1979년의 복식현상
II. 연구방법 및 범위	4. 1980~1989년의 복식현상
III. 사회적 배경	5. 1990~1996년의 복식현상
IV. 시대별 복식현상	V. 결 론
1. 1946~1959년의 복식현상	참고문헌
2. 1960~1969년의 복식현상	ABSTRACT

I. 서 론

복식은 사회의 정치제도, 경제사정, 도덕적인 패턴, 심미적 양식, 건축양식, 과학기술적인 양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동시에, 한 문화내에 서도 항상 변한다. 그러므로 복식과 복식행동의 기본적인 양식들은 문화적 형태의 본질적인 부분

이며 일정한 사회의 기술적,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미학적 배경을 반영한다.¹⁾ 따라서 복식의 시대적 현상에 관한 연구는 그 시대의 복식을 설명함 은 물론 그 복식이 유행하였던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유수경³⁾ 박길순⁴⁾, 서희영⁵⁾, 홍찬석⁶⁾, 유경숙⁷⁾, 박순양⁸⁾, 김정진·김은정⁹⁾,

*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7년 학술비 지원에 의한 것임.

- 1) 김정진,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1997)
- 2) 홍찬석, "한국현대여성의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 3)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9).
- 4)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 5) 서희영, "우리나라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연구-1953년부터 1988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1).
- 6) 홍찬석, 전계서.
- 7) 유경숙, "해방이후 한국 패션변천", 군산대학교 「논문집」, 23(1996).
- 8) 박순양, "한국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1945년 이후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9) 김정진·김은정,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1997).

유송옥·권혜옥¹⁰⁾ 등은 8·15 해방이후 한국복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현상에 관한 연구를 행했으며 김진구¹¹⁾, 손명임¹²⁾, 최선희¹³⁾, 박찬부¹⁴⁾는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신문에 나타난 복식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복식문화 특성변천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중의 시대상을 반영해주고 당시 대구문화를 선도하였다고 여겨지는 신문중에 매일신문을 택하여 1946년~1996년까지의 매일신문 50년사에 나타난 복식과 관련된 기사를 총체적으로 선택하여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복식현상을 이해하고 반세기 동안의 복식의 흐름을 고찰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현대복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앞으로의 유행과 패션산업을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1946년부터 1996년까지 매일신문 50년사를 택하여 1946~1959년(정부수립기와 복구기), 1960~1969년(경제도약기), 1970~1979년(경제성장기), 1980~1989년(고도성장기 I), 1990~1996년(고도성장기 II)의 5단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복식현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46~1962년까지는 매일신문 마이크로 필름을, 1963~1996년까지는

매일신문을 이용하였으며 그외 자료로 관련서적, 학회지, 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III. 사회적 배경

해방 직후의 복식문화는 일제의 탄압과 궁핍한 유산을 물려 받은데다가 더욱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이 겹친 만큼, 정상적인 복식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해방이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때의 복식은 전통양식으로의 회귀를 예상케 하는 바 없지 않았으나, 미군의 진주와 군정, 해외 동포의 대거 귀국으로 오히려 복식의 서양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욱 컸다. 혼란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50년 6·25동란으로 전통 복식문화의 기본마저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1953년까지의 전쟁기간과 그 직후의 전쟁복구 기간중의 의생활 수요는 겨우 대일·마카오 밀수와 구호품, 유출 군수품으로 최소한을 충족할 뿐이었다.¹⁵⁾ 해외에서 구호품으로 들어온 의류는 너무 커서 줄여서 입게 되었으며, 마카오에서 들어온 옷감은 밀수품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으로 이것으로 옷을 해입게 되면 세칭 ‘마카오 신사’라 불려졌다.¹⁶⁾

1960년~1969년에는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집권한 제 3공화국 정부는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과 민족의지의 수립이란 목표아래 그 구체적 실현을 각 분야에 요구하게 되었다. 군사정부의 ‘패션’을 보는 시각은 특히 부정적이어서 국민정신을 좀먹는 퇴폐적인 것으로 여김에 따라 한국의 ‘패션’

10) 유송옥·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26(1996)

11) 김진구, “개화기 한국인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2)-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 연구」, 10(1992).

12) 손명임,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1920년부터 1945년까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13) 최선희, “조선일보에 나타난 복식변천과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 일제문화정치시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14) 박찬부, “한국 복식 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1994).

15)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p.477-478.

16) 윤자정, “한국의 모드 100년사-쓰개치마 시절에서 속옷 패션시대까지”, 「멋」, 1984년 5월, pp.230-237.

문화는 침체되었다.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당시 일선 정치에 나선 군인들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어 의복은 군사정부의 집권 후 감소한 양상을 띠었다. 커피, 외래사치품, 비밀댄스홀 등이 없어지고 외국산 의류의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국산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시기는 또 TV 방송이 시작되고 TV의 보급으로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⁷⁾ TV의 보급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보다 시각적이기 때문에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하였으며 연예인이 패션 전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⁸⁾ 또한, 1960년대에는 1950년대에 비하여 의상기사나 화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60년대 이후의 사진의 발달은 패션화보와 함께 패션페이지를 많이 출현시키는데 박차를 가하였으며 1968년에는 10월 패션전문 종합지 「의상」이 창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중문화현상은 급격히 진행되어 문화의 대중화현상과 대중문화의 수용이 급격히 늘어났다.¹⁹⁾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특성은 대중매체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TV가 전파하는 획일화되고 평준화된 복식문화는 빠른 시간에 전국에 보급되어 질 수 있었고 한국사회에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산업이 발달하고 고등교육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됨에 따라 여성에게도 평등한 기회속에서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교육받은 여성인구가 늘어나게 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관은 변화되었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비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직업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활동성이 강조되고 간편함을 즐기게 되었으며 성 역할에서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의복에서의 성차이도 줄어들게 되어 남성적인 의복의 특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디자이너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소수의 디자이너는 소규모의 부티형태로 기성복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대기업들이 기성복을 생산하면서 그때까지의 저가의 시장제품으로 이루어졌던 기성복 시장에 중·고가품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품질경쟁을 함에 따라 우수한 의복이 생산되면서 소비자의 기성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²⁰⁾

이와 같이 70년대는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전파매체가 널리 보급되어 생긴 생활욕구와 소비욕구의 다양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욕구에서 패션의 빠른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컬러 TV의 보급과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양적, 질적 팽창으로 인해서 서구의 문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에는 중고교의 교복자율화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니어복 전문 메이커가 증가하고 영패션이 새로이 대두되었다.²¹⁾ 1986년에는 자율화조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86년 2학기부터 교복을 자유롭게 착용하도록 허용하게 되었으며²²⁾ 이에 따라 실용적,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의 교복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니어를 대상으로 하던 의류업체들은 방향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80년대에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

17) 강현두,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 도서출판 나남, pp.27-28.

18) 오영희, 패션잡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93.

19) 강현주,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20) 박길순·김진구,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 「복식」, 15 (1990), pp.107-120.

21) “교복 맞춤집 전·폐업 속출” 「매일신문」, 1983. 2. 9.

22) “중고 교복 부활 교장에 일임”, 「매일신문」, 1985. 10.16. p.5.

한 관심이 고조되어 스포츠용품업계가 호황을 누렸고, 패션계에서는 서구 패션의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의 미를 소개하는 한 방법으로 한복의 현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80년대는 소비패턴의 선진국화, 교복 자율화,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패션산업의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출범한 문민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신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안에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1980년대의 소비성향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환경보호나 RECYCLE이 사회각계에서 일면서 패션도 그런 시류를 반영하게 되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브랜드별, 지역별,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90년도를 전후로 불어닥친 거품경제의 영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결정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함을 경각시켜주었고 다소의 소비위축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절약심리 강화로 중저가품이나 세일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기판단에 따른 자기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지구 환경파괴에 대한 염려가 ECOLOGY를 고조시켰고 패션리더층의 세대교체로 신(新)신세대라 불리워지는 X세대가 새로운 패션리더로 부상하였다. 또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고전적 분위기가 최신 유행감각에 맞추어 나타난 TRADITIONAL 열풍과 함께 마켓구조의 개편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²³⁾

이와같이 90년대는 개성추구,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으로 탈유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멋과 실용성을 갖춘 옷이 유행을 이끌고 있으며, 건강, 활동성, 기능성을 포함한 개성적인 멋과 HIGH LEVEL, HIGH TECHNIC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IV. 시대별 복식현상

1. 1946년~1959년의 복식현상

1) 여성복

8·15 해방직후 수입복지와 미국 원조물자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의생활은 밀수품까지 나돌아 한 마디로 기형적이고 무질서한 것이었으며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복식문화의 기본마저 상실케 되어 의복이란 고작 구호물자로 들어오는 몸에도 잘 맞지 않는 헌옷가지를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대표적인 구호품은 낙하산으로 만든 하늘하늘한 블라우스와 미군담요로 만든 코트였다. 미군복은 검은색으로 몰들여 착용하였으며, 낡은 옷을 뒤집어 입어 단추와 주머니가 반대방향에 달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²⁴⁾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복식계도 제자리를 찾았고 유행의 관심도도 높아져 복식과 관련된 기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기사의 특징은 양장의 편리함에 대한 계몽기사, 양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 용도에 맞는 의복 선택기사 등을 들 수 있다. 6·25전쟁후 구제품 양장의 보급으로 대중적으로 입혀져 오던 치마, 저고리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하나의 사치품처럼 취급되어 오던 양장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고 양장의 활동성, 경제성, 편리함 등을 계몽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였다.²⁵⁾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이시기에 가장

23) 김정진, 김은연,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 1996. pp.238-239.

24) 조규화, 「韓國 패션에 나타난 美意識」, 패션비즈니스학회, 1997. p.3.

25) 「직장여성의 옷차림」 「매일신문」, 1957. 10.27. p.4.

많이 기사화된 내용은 유행스타일에 관한 기사 보다는 주로 양복착용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많았다.²⁶⁾

사회안정과 더불어 외국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서울 남대문 시장에 4-5개의 소규모의 기성복 업체가 설립되어 성인복이 기성복으로 생산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의 기성복은 시설의 미비와 생산기술 등의 부족으로 품질이 극히 나빴으며 사이즈가 잘 맞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기성복에 대한 신용도가 없었다.²⁷⁾ 따라서 소비자들이 활용할 만한 공급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행경향과 함께 만드는 법까지 제시한 양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많았다.^{28)·29)}

또한 이때는 실용가정복, 통근복, 통학복, 외출복, 가정직장공용복 등 용도에 따른 의복 선택과 양장지식을 알려주는 기사도 자주 등장하였다.^{30)·31)·32)}

2. 1960년~1969년의 복식현상

1) 여성복

4·19의거와 5·16혁명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지위와 의생활은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초반에는 5·16혁명정부의 정책차원의 일환으로 신생활 재건운동이 전개되었고 의생활에 맨 먼저 적용되어 한국재건운동본부에서는 실

용성있고 검소한 재건복을 입도록 유도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의복이 사용되어져 새로운 복장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을 창조할 수 있었고 의복을 통해 국민정신의 총화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 폐품전시회라든가 헌옷을 재활용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표준치수의 사람이면 큰 치마(한복) 한감으로 투피스 한벌과 베스트까지 만들 수 있다며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한복을 활용하여 의복을 재건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였다.^{33)·34)} 이에 대하여 1961년 8월 26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긴 치마자락을 날리며 진창길을 걸어야하는 우리네의 비합리적인 의생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회가 점차 안정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섬유산업의 발달은 복지의 완전국산화를 이루었고 의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행에 민감해졌다. 따라서 유행경향에 대한 정보 또는 피크닉복, 비치웨어, 등산복 등 장소와 때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가 기성복의 증가로 실용적이고 세탁에 편한 기성복을 사도록 하는 기사가 등장하였다.^{35)·36)·37)}

1967년에는 가수 윤복희가 국내최초로 입어 화제를 일으켰던 미니스커트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풍기단속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60년대 말, 70년대 초 젊은 여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한국 복식계의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³⁸⁾

26) 이미경,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27) 정혜영, “가격별에 의한 상표와 봉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1). 1978. p.43.

28) “가정-초췌의 원피스”, 「매일신문」, 1957. 5.21. p.4.

29) “목요일-봄의 투피스 재단법”, 「매일신문」, 1957. 3. 14. p.4.

30) “부인-경쾌한 통근복”, 「매일신문」, 1955. 7. 17. p.4.

31) “통근복과 외출복”, 「매일신문」, 1958. 6. 15. p.4.

32) “출무복을 살린 외출 통근복”, 「매일신문」, 1958. 7.27. p.4.

33) “안입는 한복치마로 거뜬히 만들 수 있다나”, 「매일신문」, 1962. 10. 6. p.4.

34) “「리폼」과 여성의 매력”, 「매일신문」, 1970. 9. 1. p.3.

35) “피크닉복”, 「매일신문」, 1965. 4. 2. p.4.

36) “아유회를 위한 가이드”, 「매일신문」, 1969. 4. 21. p.6.

37) “기성복 사느라”, 「매일신문」, 1965. 7. 14. p.4.

38) “윤가을 의상-「미니」거세 「맥시스커트」”, 「매일신문」, 1967. 9. 13. p.4.

2) 남성복

1960년대는 발달된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복의 모드에 대한 정보교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성복이 갖는 특수한 여건으로 시대적 감각이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재건국민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국민생활 계몽 운동에 따른 생활의 간소화, 합리화로 재건복(再建服)이 등장하여 일반유행의 흐름은 주춤하였다.

재건복의 착용으로 경직되었던 남성복은 해가 바뀌면서 잡지와 신문에 신사의 옷차림이나 새로운 모드인 아이비형이 소개되었다.³⁹⁾ 60년대 초기에는 그 동안의 미국형 일련도의 유행이 지양되고 유럽스타일의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형과 유럽형을 절충한 중간형 즉 「인터내셔널·스타일」이 유행하였다.⁴⁰⁾ 60년대 후반에는 「콘티넨탈」형으로 변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⁴¹⁾

1960년대는 의복의 유행스타일에 관한 기사 못지않게 양복착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양복입는 법에 관한 것이 기사화되었다. 특히 와이샤쓰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42)·43)·44)·45)} 같은 시대의 동아일보 1960년 5월 19일 기사에서도 「와이샤쓰 상식」에 관하여 썼다.⁴⁶⁾

3) 아동복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복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었지만 어른들의 의복에 비해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 특수한 계급이나 일부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개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른들 옷에만 집중되고 있는 업자들의 관심을 아가옷에까지 돌려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⁴⁷⁾ 5·16혁명 정부의 신생활 재건운동의 영향은 아동복에도 영향을 미쳐 헌털옷을 재활용한다거나 폐품을 이용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였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재단법을 설명함으로써 실용적, 경제적, 활동적 의복을 입히도록 유도하였다.^{48)·49)·50)·51)}

한편, 아동복의 기성복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정확한 아동복 사이즈의 설정이 절실했고 메이커와 주부들을 위한 아동복 사이즈설정의 필요성과 아동복 사이즈를 소개하면서 시간 절약 뿐 아니라 옷의 ‘디자인’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⁵²⁾

3. 1970년~1979년의 복식현상

1) 여성복

모드의 공존시대라 할 수 있을만큼 70년대 전반은 「미니」「미디」「맥시」가 동시에 유행하였고 이것은 여성들의 변화된 가치관의 반영육구를 충족시키기기에 적절했으며 그 당시 멋쟁이는 판탈롱, 미니스

39) 「양복의 새스타일 「아이비」형」, 「매일신문」

40) 「남성」, 「매일신문」, 1965. 5. 12. p.4.

41) 「주부시장안내-가을치장의 쇼·윈도」, 「매일신문」 1968. 9. 6. p.4.

42) 「「와이샤쓰」의 쇼백과」, 「매일신문」 1960. 9. 29. p.4.

43) 「쇼핑가이드-와이샤쓰」, 「매일신문」, 1964. 10. 2. p.6.

44) 「와이샤쓰의 선택」, 「매일신문」, 1965. 9. 15. p.4.

45) 「남성복의 「포인트」」, 「매일신문」, 1965. 11. 5. p.4.

46) 이미경,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30.

47) 「미국의 아동복-질긴 재질을 쓰고」, 「매일신문」, 1962. 4. 18. p.4.

48) 「폐품이용」, 「매일신문」, 1962. 9. 28. p.7.

49) 「털실의 이용계절」, 「매일신문」, 1968. 12. 18. p.6.

50) 「간편한 어린이 활동복 만들기」, 「매일신문」, 1962. 10. 30. p.7.

51) 「실용적인 소년 작업복 만들기」, 「매일신문」, 1962. 10. 30. p.7.

52) 「어린이옷은 몸에 맞게」, 「매일신문」, 1966. 7. 28. p.4.

커트, 핫팬츠 위에 맥시코트를 즐겨 입었다.^{53)·54)·55)}

또한 블루진과 T셔츠는 젊은이를 대표하는 부담없는 옷으로 남녀 구별없이 입혀졌고 틴에이지와 여대생사이에는 세계적인 「유니섹스모드」의 물결을 타고 스포티한 「슬랙스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변화된 가치관의 반영욕구를 충족시키고, 남성의 권위와 우월감에 대한 여성들의 동등하고자 하는 표현수단이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거부와 자아표현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1974년 7월 9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특색 있는 의복으로 블루진을 지적하고 있으며 색상과 쓰임새가 점차 다양해져 젊은이들 뿐만아니라 어린이들에서부터 주부들까지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치마입을 여성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여성의 올바른 팬츠착용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였다.⁵⁷⁾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레저붐이 확산되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합성섬유의 생산 증대로 신축성이 풍부하고 다루기 쉽고 입기 편한 복지로 스포티한 의복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헐렁한 스타일의 「루즈 룩」과 겹쳐입는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다. 「루즈룩」은 전체적으로 마치 남의 옷을 빌어 입은듯한 헐렁한 튜브형의 실루엣에 드롭숄더칼라, 커피스, 아웃포켓 등에 포인트를 준 것으로 지금까지 곡선미를 살린 정적

인 여성미를 강조한데 비해 이웃은 등적인 미를 강조한 것이다. 1964년에 국내에서 유행하기도 했던 「레이어드 룩」은 블라우스, T셔츠 등을 여러겹 겹쳐입고 그위에 베스트나 다양한 니트웨어를 덧입는 스타일로 정장스러운것 보다 이런 겹쳐입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58)·59)·60)}

한복은 실용적인 양장에 밀려 점차 예복화되었고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한복의 종류는 물론 옷 고름하나 제대로 못대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한복을 맵시있게 입는 방법에 관한 기사가 종종 등장하였다.^{61)·62)}

2) 남성복

이 시기는 산업구조가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옮겨진 시기이므로 여성복 뿐만 아니라 복식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70년대초에는 60년대 후반에 유행한 콘티넨탈 스타일-상의 밑 부분이 약간 넓어지며 깃 모양이 넓고 깃 밑부분이 길게 발달한 미각으로 시원스럽게 보이며 하의는 바지통이 약간 넓으며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 계속 유행하였다.^{63)·64)·65)}

이 시기의 개발정책 자체가 무역을 전제로한 산업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보수적 취향이 강해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 하면서도 가끔 토착으로 첨단 의 유행이 소개되었으며 상하가 같은 정장차림에서 다소간

53) “봄의 모드-튜닉에 판탈롱 일색”, 「매일신문」, 1970. 3. 24. p.5.

54) “모드의 공존시대”, 「매일신문」, 1971. 1. 12. p.5.

55) “여름 옷차림”, 「매일신문」, 1974. 7. 13. p.5.

56) “젊은층 「유니섹스」물결 휩쓸어”, 「매일신문」, 1972. 9. 12. p.5.

57) “「팬츠」시비속에 패션의 방향은”, 「매일신문」, 1971. 3. 7. p.5.

58) “올가을 겨울 여성복”, 「매일신문」, 1975. 8. 29. p.5.

59) “올겨울 코트-빅스타일이 주조”, 「매일신문」, 1975. 11. 25 p.5.

60) “初夏모드”, 「매일신문」, 1978. 6. 14. p.5.

61) “추석한복 맵시있게 입을려면”, 「매일신문」, 1977. 9. 21. p.5.

62) “한복 맵시있게 입을려면”, 「매일신문」, 1979. 10. 4. p. 5.

63) 「매일신문」, 1970. 7. 21. p.5.

64) 「매일신문」, 1970. 10. 6. p.5.

65) 「매일신문」, 1971. 3. 9. p.5.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70년 12월 3일 기사에서 잠바의 수요가 늘자 남방사쓰도 점차 인기가 있다고 썼으며, 1972년 6월 18일 기사에서는 남성 패션에 노타이가 대유행이라 했다. 이에 대하여 74년 10월 22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남성 기성복도 정장일변도에서 벗어나 간편하고 값이 싼 롬비, 점퍼 등 실용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썼다.⁶⁶⁾ 이는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는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기능적인 옷차림이 합리적인 의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복에 패션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은 1960년에 대한복장연구회 주관으로 YWCA에서의 신사복 패션쇼가 열렸고 1966년 반도호텔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의 '남자옷 국제 패션쇼'가 열렸으며 대규모 패션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이어 지방인 대구에서는 1975년 3월 금호호텔에서 남성복 「패션쇼」가 처음으로 열려 남성복의 미래를 밝혀주었다. 이때 20여점의 의상이 발표되었으며 작품주제는 동양인의 체격에 맞는 의상, 실생활과 연관된 남성복에 대한 것이었다.⁶⁷⁾

이 시기에는 의복에 다양한 품목이 등장하였고 점차 의복색도 화려하게 변했다. 특히 와이셔츠는 흰색이 주종을 이루다가 7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베이지」색, 소라색, 회색 등 다양해졌으며 「베이지」색 바탕에 밤색 줄무늬와 흰색바탕에 감색물방울 무늬 등 무늬도 다양해졌다.⁶⁸⁾ 또한 79년 3월 31일 기사에서 와이셔츠 「디자인」은 칼라가 다시 좁아지고 끝이 오므라지는 「스탠·칼라」가 유행

을 이루고 있으며 Y「셔츠」는 전체적으로 세계적 추세인 「유니섹스」의 붐을 크게 타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녀 옷차림의 차이점을 점차 감소시켰다.

3) 아동복

여성들의 패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반해 아동복은 헌옷 개조 또는 재단법을 설명함으로써 여전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의상생활의 변화가 극심해 해마다 천과 색조무늬의 유행이 바뀌고 있음에 이러한 유행이 빠르게 지나간 여성의 '오버코트'나 '스프링코트' 등의 의복을 개조하여 아동복에 리폼하여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자주 기사화되었다.^{69)·70)}

또한 놀이옷, 잠옷, 추석빔 등 엄마가 손수 만들어 입힐 수 있도록 재단법과 바느질법을 설명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71)·72)·73)}

이외에도 취학아동의 의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기사화되어 한 두가지 옷으로 몇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수명이 긴옷을 선택하는 요령, 기성복 선택과 그 후 처리법 등을 제시하여 아동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였다.⁷⁴⁾

4. 1980년~1989년의 복식현상

1) 여성복

색채 혁명을 예고한 TV의 컬러화는 국민생활자체가 「컬러플」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색채 감각은 소비패턴에 변화를 불렀으며 가장 민감한 반응

66) 이미경,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45.

67) 「매일신문」, 1975. 3. 12. p.5.

68) 「매일신문」, 1979. 6. 16. p.2.

69) “헌 「오버코트」의 개조”, 「매일신문」, 1971. 11. 13. p.5.

70) “어린이 추석빔 준비”, 「매일신문」, 1971. 9. 24.

71) “엄마가 만드는 간편한 놀이옷”, 「매일신문」, 1973. 7. 20. p.5.

72) “어린이 잠옷 만들기”, 「매일신문」, 1973. 10. 19. p.5.

73) “엄마가 만드는 추석빔”, 「매일신문」, 1974. 9. 24. p.5.

74) “취학 옷 준비”, 「매일신문」, 1972. 2. 29, p.5.

을 보이는 것은 주로 의상, 화장, 구두 등 개인 패션에 관계되는 상품이었다. 이미 컬러화되어 있던 여성의류에도 컬러방송의 효과는 여전해 쾌적하고 세련된 패션에의 요구와 함께 밝고 화사한 색깔이 주류를 이루었다.

80년대 초반에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현대인에게 있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레저복을 타고 활동성, 실용성 등 큰 부담없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캐주얼 웨어가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세계적인 디스코 열풍의 흐름을 타고 소위 「디스코 바지」라 불리는 「베기바지」가 유행했으며, 흡사 너스런 바지를 잘라낸 듯한 일명 「버뮤다 팬츠」와 스커트면서 바지인 「퀵스커트」 등 짧은 반바지 스타일이 함께 유행하였다.^{75)·76)} 70년대 중반이후 시작되었던 「레이어드 룩」의 인기는 계속되어 활동성, 실용성, 정장성을 겸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입혀졌다.⁷⁷⁾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종전의 크고 험렁한 스타일에서 가늘고 몸매를 강조하는 슬림스타일로 이행하면서 부드럽고 우아함을 살린 여성적인 느낌의 실루엣인 「페미니 룩」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70년대부터 유행했던 「유니섹스모드」의 성분화를 보여주는 일이었다.^{78)·79)}

또한 이 시기에는 우리것에 대한 재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영향으로 인해 우리옷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면서 한복입기를 생활화하려는 운동이 주부클럽을 주축으로 일어났다.^{80)·81)} 이것은 두차례에 걸친 국제적 행사를 대비한 자발

적 실천으로 우리것에 대한 여성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한복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한복을 편하게 입어야 하며 편안히 입기 위해서는 바로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개화기 당시 신여성들의 복장이었던 통치마가 다시거리에 등장하여 파티복 등 예복화 일변도에 맞서 생활한복으로서의 요구와 개성시대에 따른 특색있는 감각의 표현으로 입혀지기도 했다.^{82)·83)}

이와같은 한복의 평상복화 움직임은 입기 편하고 맵시좋은 개량형 한복으로 나타나 한복의 비실용성, 불편함 및 예복화로 인한 어색함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⁸⁴⁾

여성의류에도 한복풍이 크게 유행하여 의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이 한국적인 느낌을 표현하였고 소재, 장식 등에 한국적인 것들이 활용되면서 현대적으로 소화해낸 것을 볼 수 있다.⁸⁵⁾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량한복형태가 많이 나와 예복으로 굳어졌던 것이 생활복화 되었고 한복의 선과 문양 등을 양장에 도입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2) 남성복

4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GNP의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로움은 문화의 풍요로움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소비패턴이 선진국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었으며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외모에 큰

75) "올가을 여성 패션", 「매일신문」, 1981. 8. 13. p.10.

76) "싱싱한 여름거리의 패션", 「매일신문」, 1982. 7. 22. p.6.

77) "불패선 「레이어드룩」 주류", 「매일신문」, 1984. 2. 28. p.6.

78) "올봄 「페미닌룩」 유행할 듯", 「매일신문」, 1985. 2. 21. p.8.

79) "의류 「유니섹스」서 성분화로", 「매일신문」, 1987. 11. 9. p.6.

80) "여성-한복 바로 입어야 편안", 「매일신문」, 1985. 3. 19. p.6.

81) "주부 클럽회원 한복입기 생활화", 「매일신문」, 1986. 8. 18.

82) "여성-한복 바로 입어야 편안", 「매일신문」, 1985. 3. 19. p.6.

83) "통치마 거리에 다시 등장", 「매일신문」, 1988. 8. 8. p. 6.

84) "가정여성-한복 평상복 이용 움직임", 「매일신문」, 1985. 4. 22. p.6.

85) "여성 의류 한복풍 크게 유행", 「매일신문」, 1989. 6. 8. p.14.

관심을 갖게 되었다.

81년에 가을 남성 모드가 70년대 후반의 「콘티넨탈」형에서 「세미·콘티넨탈」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젊은층에서는 간이복 스타일이 늘어나서 Y셔츠에 넥타이를 갖춘 정장보다는 콤피에 T셔츠를 받쳐 입는 스포티한 스타일이 많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젊은층은 값이 싸고 자신의 감각에 맞기 때문에 캐주얼 웨어를 즐겨 찾으며 장년층은 실용성, 기능성, 편의성을 인지하면서 많이 입었다.

한편 이 시기에 70년대부터 생겨난男性的 여성화 경향이 더욱 부각되었다. 83년 5월 25일 기사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남성들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의 「토틀·패션」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썼다. 이러한 남성차림새의 변화상 중에서도 유난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유니·섹스·모드」 경향이다. 남녀공유의 패션형태를 지칭하는 「유니·섹스·모드」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여성층의 남성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들어서는 남성층에서 부쩍 여성패션화로 기우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체라고 쓰고 있으며 남성머리에 퍼머를 하기도 하고 블라우스를 입고 목걸이를 하는가 하면 가느다란 팔찌를 한 모습을 종종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남성복의 변화에 대해 1983년 9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남녀공용 의상시대로’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있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 남성들은 규격화, 획일화에서 벗어나 점차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감각화를 추구하게 되어 86년 10월 20일 기사에서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분위기의 정장류를 비롯, 하이캐주얼 스포츠 웨어 등 남성복의 패턴이 크게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가방·양말·넥타이·스카프·구두 등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이들 남성복들과 같은 흐름의 신변 잡화품들이 등장, 개성시대 속의 새로운 남성패션을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쓰고 있으

며 87년 4월 15일 기사에서는 남성복의 패션바람에 대해 썼으며 89년 2월 11일 기사에서 남성의 토틀패션시대-20~30대층 캐주얼 애용 많고, 액세서리, 인기색조 화장품도 등장, 피부 몸매에 관심 점차 늘어-에 대해 쓰고 있다. 종래 남성복 패션이라면 신사복 기의 넓이와 뒤트임, 넥타이 넓이의 변화가 고작이었으나 실루엣을 중심으로하여 색상과 소재에서 다양한 변화를 준 캐주얼복이 유행하였다. 이는 고용기회의 확대로 인해 자유직업인이 늘어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했으며 이와 더불어 세분화된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등장하여 남성들의 패션감각을 기르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아동복

물질적, 문화적 풍요로 인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아동복이 점점 고급화, 사치화, 패션화되어가는 추세였고 부모들의 고급옷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로 아동복계가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고급스런 외투에 무릎을 넘는 부츠를 신은 ‘멋쟁이’ 꼬마들의 옷차림새는 고급스러운 유명브랜드 제품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부모들의 사치풍조에 따른 아동복의 고급화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⁸⁶⁾ 1987년 6월 2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소득수준의 향상, 부모들의 교육수준의 증가 등의 이유로 아동복에도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고급소재로 만든 의복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외에도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늘고 복잡한 현대생활속에서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에 맞춰 육아용품 시장이 본격 기성품시대를 맞이하였다. 백화점이나 육아용품점에서 구입하는 주부들이 늘어나자 다양한 육아용품의 종류와 세탁에 잘 견디는 재질, 활동에 편리하며, 체온조절이 쉽고, 빛깔, 모양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

86) “어린이 옷차림 갈수록 사치화”, 「매일신문」, 1981. 2. 7. p.10.

도록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⁸⁷⁾

83년 교복자율화실시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복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고, 각자의 개성에 맞는 색상과 활동적인 옷감선택법, 때와 장소에 맞춰 입는법, 옷을 다루는 방법 등 올바른 의복선택을 위한 기사가 자주 실렸다.^{88)·89)}

한편, 자율화로 인해 생겨난 폐단으로 교육계와 학부모층에서는 여학생의 바지착용 습관화에 따른 「여성다움의 상실」즉, 거친 팔자걸음, 무심경한 앉음새 등 남성화되어가는 행동 양태를 우려하기도 했고 또 한가지는 교복 자율화 이후 유명상표의 고급옷을 사기위해 중고생들 사이에 5~9명이 한조로 이루어진 「옷계」가 유행하여 중고생의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되었고 이는 사회적인문제로 확대되었다.^{90)·91)}

5. 1990년~1996년의 복식현상

1) 여성복

1990년대는 탈냉전시대로 동구권,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환경보호운동의 영향으로 자연색상, 천연소재의 에콜로지패션이 등장하였으며, 50~60년대 복고풍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현재와

과거,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패션이 다양하게 연출되었다. 한마디로 90년대는 패션의 다양성이 혼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테마로 한 「에콜로지풍」, 「복고풍」, 「에스닉풍」, 「슬림 앤 롱라인」, 「레이어드룩」, 「그린지룩」, 「시스룩」, 「란제리룩」, 「글래머룩」, 「힙본스타일」 등으로 보다 여성스런 개성을 강조하였다.^{92)·93)·94)·95)·96)·97)·98)}

이러한 개성의 표출은 일부 여성들의 과다노출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다. 무조건 유행을 좇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형이나 감각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것도 또 다른 자신감의 표현이며 지나친 노출은 자칫 여성의 우아함을 잃게 하기 쉽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기사가 등장하였다.^{99)·100)·101)}

한편 주부들의 의식변화와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패션의 연령과피현상이 일어나 여대생 차림의 중년여성들이 짧은 반바지에 달라붙은 상의차림 여기에다 대담한 스타일의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등 나이가 아니라 젊게 살려는 마인드로 옷을 입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년층의 나이의 벽을 훌쩍 뛰어 넘어 20대 처럼 과감하게 차려입는 사람이 늘어났다.^{102)·103)}

87) 「아기옷-면 혼방제품이 적당」, 「매일신문」, 1984. 5. 15. p.6.

88) 「교복틀 벗는 중고생들 주니어 패션」, 「매일신문」, 1982. 9. 6. p.6.

89) 「중고생 옷-다양성 살려야」, 「매일신문」, 1988. 3. 7. p.6.

90) 「「여성다움」잃을까 겁나요」, 「매일신문」, 1985. 9. 9. p.4.

91) 「고교생 「옷계」 유행」, 「매일신문」, 1984. 4. 30.

92) 「새봄 여성에 「복고풍」 불결」, 「매일신문」, 1991. 1. 22. p.9.

93) 「올여름 유행할 여성패션」, 「매일신문」, 1991. 5. 1. p.18.

94) 「올봄, 여름 패션호름 롱스커트 물결」, 「매일신문」, 1993. 1. 26. p.24.

95) 「올여름 패션 「슬림라인」」, 「매일신문」, 1993. 4. 26. p. 9.

96) 「올겨울 「레이어드룩」 바람」, 「매일신문」, 1994. 11. 7. p.11.

97) 「올가을 겨울 패션-복고풍 「글래머룩」 열풍」, 「매일신문」, 1995. 8. 14. p.14.

98) 「95패션 결산」, 「매일신문」, 1995. 12. 18. p.14.

99) 「여성과다 노출 양론」, 「매일신문」, 1992. 7. 17. p.20.

100) 「지나친 노출」, 「매일신문」, 1993. 7. 19. p.10.

101) 「「배꼽티」 논란부분」, 「매일신문」, 1994. 7. 25. p.12.

102) 「20대 처럼 입고 나이 잇는다」, 「매일신문」, 1992. 6. 19. p.24.

103) 「옷차림 신풍속도」, 「매일신문」, 1996. 11. 27. p.29.

이러한 현상은 신혼부부가 똑같은 차림을 하는 커플룩 유행에 이어 딸과 엄마가 같은 차림을 하는 새로운 페밀리룩 시장을 형성하였다.

80년대 중반전후를 기점으로 우리것을 찾자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복입기 운동은 90년대 들어와 더욱더 성숙함을 더하였다. 한복의 고유한 선을 강조하면서도 디자인에 있어 양장풍의 간편성과 세련미를 조화시킨 변형한복과 기존 혼례복을 응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 웨딩드레스가 인기를 끌면서 점차 한복이 생활화되어 갔다.^{104)·105)}

1990년부터 시작된 한복패션쇼 또한 의생활의 서구화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한복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106)·107)}

한편, 전반적인 패션수준향상에 따라 임산복, 비치웨어, 골프의류 등 특징인을 겨냥한 전문기능 상품이 선을 보여 의복에서의 전문화, 세분화가 시도되었다.¹⁰⁸⁾

그리고 90년대는 한국디자이너의 해외 컬렉션 진출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중견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도 나타나 「코지호」라는 단일 브랜드로 미 의류시장에서 패션쇼를 열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¹⁰⁹⁾

2) 남성복

90년대 남성복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개성있는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남성층이 두터워지면서 여성못지않게 멋과 개성을 중시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의 특

이할 만한 것은 남성들의 반바지 유행이다. 반바지에 대한 기사는 90년 이후 95년, 96년 계속되고 있으며^{110)·111)·112)} 다양한 디자인과 색이 등장하였다고 했다. 종래의 반바지는 피서철 피서지에서나 입었는데 이것이 시내나들이 용의 아웃웨어 기능을 하고 30~40대까지 입게된 것은 남성들의 옷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남성정장은 복고풍이 계속 강세를 보여 편안하고 분위기를 강조한 스타일에 소재, 디자인, 무늬가 자연지향적인 것이 특징이다. 92년 8월 25일 기사에서는 콤파로 불리는 「세퍼레이트」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며 소재는 솔리드로 불리는 단색 무지류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줄무늬나 체크무늬가 부활되는 추세이며 색상은 회색, 검은색, 갈색, 감색 등 전통적인 색상이 많이 나와 있다고 썼다. 이러한 색상의 영향은 경기침체 등의 어두운 사회분위기 때문에 화려하고 두드러진 색깔보다는 심증이 나지않는 무난한 색깔을 선호하는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장의 형태는 싱글과 더블의 공존속에 과거의 넉넉한 품이 점차 좁아지고, 점점 더 정리돼 몸에 맞는 형이 계속 유행할 것이라 했다.¹¹³⁾ 94년 11월 7일 기사에는 남성복은 50~60년대풍의 복고적 스타일을 응용, 자연스러움과 캐주얼 감각, 이질적인 소재의 조화가 특징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며 쓰리피스가 올 겨울의 주흐름으로서 재킷의 다양화와 함께 서로 다른 소재끼리의 조화로 멋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플렉시한 느낌의 체크류와 스트라이프가 강세를 이룰 전망이라 하였다.

104) "한복 결혼 드레스 각광", 「매일신문」, 1993. 4. 12. p.9.

105) "대구한복협회패션쇼", 「매일신문」, 1996. 10. 30. p.29.

106) "제3회 한복 패션쇼", 「매일신문」, 1992. 10. 13. p.24.

107) "제4회 한복 패션쇼", 「매일신문」, 1993. 10. 20. p.24.

108) "전문 기능 상품 첫선", 「매일신문」, 1992. 5. 6. p.6.

109) "지역디자이너 「93코니호 브랜드」 저력과시한다", 「매일신문」, 1992. 10. 20. p.24.

110) "남성패션 노출 심해졌다", 「매일신문」, 1990. 8. 8. p.8.

111) "남성반바지유행", 「매일신문」, 1995. 6. 26. p.14.

112) "올해도 반바지 유행", 「매일신문」, 1996. 5. 14. p.11.

113) "올 겨울, 새봄 남성복 전망", 「매일신문」, 1992. 11. 17.

그 외에도 니트류와의 조화, 남성의 베스트와 노타이의 조화 등에 대해 썼으며, 단추가 네 개 달린 포터튼 정장이 신세대 남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90년대 접어들면서 남자한복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였다. 올바른 한복착용과 세배법,¹¹⁴⁾ 남성개발한복 인기¹¹⁵⁾ - 바지에 지퍼를 단다든가, 고름 대신 단추로 처리 - 등 전통적 맵시를 살린 남성한복에 대해 쓰고 있으며 남자들은 마고자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난 것이므로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한다고 했다.

3) 아동복

90년대는 소득의 향상, 낮은 출산율, 주부의 사회진출, 주부의 여가시간 증가, 기호의 다양화,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신세대주부들의 아동복 구매패턴이 변하여 80년대의 주부들과는 달리 다양한 아동복 제품을 요구하게 되었고 본인의 패션의식을 창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구매패턴은 고급브랜드만 고집하는 아이를 만들었다며 어릴때부터 비싼옷 보다는 싼값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고 멋을 부려 볼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남의 헌옷을 물려받아 입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녀교육을 다시 시작하자는 기사가 실렸다.¹¹⁶⁾

또한 유아복에 있어서 제품치수에 대한 시비는 90년대에도 계속되어 유아복 치수의 공통 표준 치수없이 업체별로 규격기준이 다르므로 제품치수가 넉넉한 것을 선택하라는 내용의 유아복 치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¹¹⁷⁾

V. 결 론

매일신문 50년사와 때를 같이하여 194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일신문」에 게재된 복식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해방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식문화현상을 살펴보았다. 1946~1959년의 복식과 관련된 남성복 기사는 없었으며, 여성복 20건, 아동복 2건, 총 22건이었다. 복식의 주제별 특성으로 50년대 중반이후부터 여성복은 양장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계몽기사와 양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정치적·경제적악화로 문화면의 빈곤을 초래하였고 이에따라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문화현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는 우방의 원조로 인한 경제 회복과 산업의 부흥으로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복식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되었다. 기사 빈도수는 이 시기가 가장 저조하였다.

1960~1969년의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남성복 25건, 여성복 106건, 아동복 17건, 총 148건이었다. 복식의 주제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복은 재건복이 등장하였으며 점차 유행경향에 따라 여러스타일이 유행되었으며 양복착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양복입는 법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여성복 또한 60년대 초반에는 같은 취지로 헌옷을 재활용하는 등 실용적이고 겸손한 재건복을 입도록 유도하였으나 점차 경제성장과 함께 유행경향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복에 대한 관심은 전 시기에 비하여 증가하지만 대부분이 헌털옷을 재활용한다거나 손쉽게 가정에서 만들어 입힐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사가 많았다.

5·16혁명 이후 조국의 근대화를 내걸고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이

114) "올바른 한복착용과 세배법", 「매일신문」, 1993. 9. 27. p.11.

115) "삼베·모시의 현대화", 「매일신문」, 1994. 6. 6. p.11.

116) "아이들의 옷차림", 「매일신문」, 1993. 6. 29. p.15.

117) "유아복-제품치수 넉넉한 것 골라야", 「매일신문」, 1991. 6. 7. p.18.

루게 되었고 도시화, 교육의 증가, 대중매체의 변화와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등으로 서구문물이 급속히 들어와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고유한 전통문화보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심리와 함께 서구문화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60년대는 한국복식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기사 빈도수도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970~1979년은 남성복 18건, 여성복 65건, 아동복 20건, 총 103건이었다. 남성복은 정장차림에 다소변화를 시도했으며 노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때 지방인 대구에서 남성복 패션쇼가 처음 열렸을 정도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복은 「미니」, 「미디」, 「맥시」, 「판탈롱」, 「핫팬츠」 등 다양한 모드가 공존한 시기였고 남녀 구별이 어려운 유니섹스모드가 유행하였으며 70년대 후반에는 활동성, 기능성, 쾌적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스포티한 복장이 유행하게 되었고 「레이어드 룩」으로 자유롭게 개성을 표출하였다. 아동복은 여전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활동하기 편리한 의복을 제작하여 입히도록 하는 기사가 많았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욕구의 다양화, 고도화를 충족시킨 개성을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빠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생산구조가 기성복화 하게 되었다. 이런 기성복화와 대량생산된 의복으로 패션은 더 빠른 변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다양한 모드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및 남녀 평등차원의 유니섹스모드, 다원화된 복식의 공존으로 60년대까지의 여성복 중심의 기사가 70년대 이후에는 여성복 뿐만 아니라 남성복을 포함한 복식전반에 걸쳐 두루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1989년 복식은 남성복 12건, 여성복 72건, 아동복 18건, 총 102건이었다. 남성들이 의도

에 관심을 갖게 됨과 동시에 남성복은 실용성, 기능성, 편의성을 추구하여 캐주얼 웨어와 같이 스포티한 스타일이 많아졌다. 또한 남성의 여성화 경향과 토틸패션이 대두되었다. 여성복은 활동적, 실용적인 캐주얼 웨어가 인기를 끌었으며 우리 것에 대한 재인식이 확대되어 한복의 평상복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동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비시장으로 각광받으면서 고급화, 사치화, 패션화되어가는 경향이였다.

소비패턴의 선진국화, 교복 자율화,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 게임등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패션산업의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적 요소의 강화 또는 전통적 요소의 강조가 부합되어 전통지향적인 추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미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복의 현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1990~1996년의 복식과 관련된 기사는 남성복 21건, 여성복 75건, 아동복 6건, 총 102건이었다. 90년대 남성복은 이전 시기보다 더욱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파격적인 인식변화로 반바지가 유행했으며, 정장에 있어서는 단추가 4개인 것이 유행하였다. 여성복은 천연 소재, 자연 색상,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새롭고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되었고, 「에콜로지풍」, 「복고풍」, 「슬림 앤드 롱라인」 등 패션의 다양성이 존재한 시기로 보다 여성스러운 개성을 강조하였다. 신세대 주부들의 구매패턴이 아동복 구매에도 그대로 미쳐 다양한 디자인, 색상을 요구하는 패션성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복식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과소비를 못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절약심리 강화로 중저가품이나 세일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염려가 ECOLOGY를 고조시켰으며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환경보호와 RECYCLE이 사회각계에서 일면서 패션도 그런 시류를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개

성추구,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으로 탈유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멋과 실용성을 갖춘 옷이 유행을 이끌었으며 신세대라 불리워지는 X세대가 새로운 패션리더로 부상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로맨틱 무드, 에스닉 무드, 심플한 현대감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홍찬석, 한국현대여성의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2)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3)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4) 서희영, 우리나라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연구 -1953년부터 1988년까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5) 유경숙, 해방이후 한국 패션변천, 군산대학교 「논문집」, 23, 1996.
- 6) 박순양, 한국남성복 변천에 관한연구-1945년 이후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7) 김정진, 김은정,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 1997.
- 8) 유송옥, 권혜옥, 한국 현대 남성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26, 1996.
- 9) 김진구, 개화기 한국인의 가정생활양식에 관한 연구(2)-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 연구, 10, 1992.
- 10) 손명임,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1920년부터 1945년까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1) 최선희, 조선일보에 나타난 복식변천과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일제문화정치시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2) 박찬부, 한국 복식 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 1994.
- 13)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14) 조규화, 「韓國 패션에 나타난 美意識」, 패션비즈니스학회, 1997.
- 15) 정혜영, 가격별에 의한 상표와 봉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1), 1978.
- 16) 오영희, 패션잡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7) 강현주,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 18) 박길순·김진구,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영향, 복식, 15, 1990.
- 19) 김정진, 김은연,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현상에 관한 연구-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중심으로,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1, 1996.

Abstract

Study on the aspect of costume in 「Maeil Shinmun」

- Focused on Men's wear, Women's wear
and Children's wear -

This study presents the aspects and changing process of the habilitment from the National Liberation up to now by analyzing the articles of costume found in 「Maeil Shinmun」 from Jan. 1. 1946 to Dec. 31. 1996.

In the period of 1946~1959,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hrough the National Liberation and Korean war deteriorated and the interest in costumes were weakened.

But the economic recovery and social stability in the middle of the 50's made the lost interest in costumes increase.

From 1960 to 1969, the high economic grow-

th was achieved by “Five year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gress of mass media,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education brought western culture to our society. It spread rapidly and changed the way of life and the sense of value. These phenomenon led to a great transition on the Korean costume culture in the 60's

In 1970~1979, the articles of costume made a change from the 60's, which focused on women's wear, and tuned to one including general costumes not only women's wear but also men's wear due to the women's social roles, the unisexmode and diverse costume.

In 1980~1989, the growth of the consumption, the banning of the school uniform, Asian Games(1986) and Olympic games(1988) caused

the high qualification, person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Furthermore, the traditional-oriented trend with Korean culture was emphasized. It pursued the moderniz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to introduce the unique Korean Beauty.

From 1990 to 1996,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 door policy, the competition of nations became intense and the comprehension about environmental destruction highlighted the concerns on ecology.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cycling were reflected in the fashion. It prevailed that the pursuit of personalization, diverse style, practicality and the fashion leader called generation appeared.